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통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7호 [루체 제25065호] 주제 104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0돐 경축대표들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등 비롯한 당파 국가, 군대의 책임임원들과 항일혁명투사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들과 영웅적 선화들, 전화위복의 기적들로 빛나게 장식 한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

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영광과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4.25세 육단 축구감독 김광민, 개천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순화가 정치를 펼치는 인민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한 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반드시 이 땅우에 인민대중체육주의의 성스러운 혁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찬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담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혁명의

연대들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

으며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수호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해온 경축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에 넘쳐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축대표들이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핵심, 시대의 선도자의 영예를 떨쳐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주시고 한 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들어쥐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백록같은 충정을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항상을 위해 마을쓰시며 물고기생산과 가공에

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명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 중앙에 형상되어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반들어 모실 일념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충정의 한마음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승리의 70돐》

파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로동당창건의 역사적 과정은 온갖 종파주의와의 치열한 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동반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은 1926년 태도제국주의 통령을 결성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와 사내로 양로진 파거 후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여 조선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였다.

운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시 세계는 김일성동지의 령도 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린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1950년대에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면 미제를 타승하는 힘 있는 역량으로 자리날출을 물렸다. 조선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위협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조선인민파의 련대성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기지로 전변시켜 주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 있다.

모자이크벽화《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단란하고 평화로운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계신다.

모자이크벽화《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단란하고 평화로운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계신다.

모자이크벽화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항상을 위해 마을쓰시며 물고기생산과 가공에 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명도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 중앙에 형상되어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반들어 모실 일념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충정의 한마음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러친 만민의 환호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70돐을 맞으며

우리는 지금 개선문광장에서 있다.

잊지 못할 역사의 지점에 선 우리에게 전에는 70년전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에서 터쳐놓았던 민족의 환호성이 역사의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물려온다.

태양파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높이 드시어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달례를 보내시는 30여 백두산청년장군 위대한 김일성동지!

피어린 항일혁명의 20성상 천고의 불무터림에서 온갖 풍랑과 힘을 다해 우리 해방을 안아 오신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우리 인민이 헌신 결정의 환호성!

항일의 전설적 용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인민의 기습속에서 활화산처럼 뛰쳐나온 끝없는 감격과 환희의 분을 우리에게 잊을 수 있으며.

역사적인 조국개선연설로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둘이켜보는 뜻깊은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은 빠았건 나라를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영웅용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터쳐놓은 감격과 환호성이 삼천리 강산에 굽이치면 70년전 역사의 그날을 궁지높이 떠올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 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다.』

주체 34(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과 함께 삼천리강도는 지칠길이에서 물어버렸던 용암이 떠져 오른듯 온 민족의 넘치는 기쁨과 환호속에 설레이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얼마나 일일천추로 고대하였다.

민족의 탁월한 명수를 낳은 평양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기다리며 낮에 이어 밤에도 잠들지 물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으시며 구체적인 탕방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느라 쌓이고

쌓인 피로도 투실 사이없이 새하얀

혁명직장, 인민의 리익을 흥호하는

우리 당의 창건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헌신파하고

물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해방된 조국의 그날 위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뜻깊은 경

사의 날이 왔다.

역사의 그날 뜨거운 열기로 탈아온 모든 봄봉기슭의 공설운동장(당

시)은 구름같이 모여온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쪽대기들에 사람

이 훌라거았고 최승대와 유틸대쪽

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반민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그리고 매일같이 현지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

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그처럼 바라고 바란던 인민들의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대 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련일 성황리에 진행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대 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11일부터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공연장소인 김일성광장과 대동강畔은 당창건 70돐을 조국혁사에 투기한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인 승리자의 궁지와 자랑을 알고 모여온 각계 총군중들로 차고 넘치고 있다.

국가의 장중한 합창으로 시작된 공연은 첫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 잡았다.

출연자들은 남성독창과 합창 《동지애의 노래》, 합창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합창과 무용 《승리의 5월》, 어온 금방창과 합창 《우리는 빌려서 시작하였네》, 관현악과 노래연곡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당의 기치 따라》 등의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펼쳐놓았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하나의 사상과 협통을 끊임없이 고수하며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의 대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70년 역사가 종목들마다에 감명 깊은 예술화폭으로 형상되었다.

한평생 주체의 뜻은 당기를 높이 드리고 사회주의워임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同志의 말

불명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합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 아래 주체음악에 술의 개화 발전에 공헌한 오랜 가수들과

연주가들이 출연하는 너성기악

중주 《내를 이어 흥성을 다하렵니다》, 남성 4중창 《수령님 은역일세》, 《웃음꽃이 만발했네》, 내성중창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 합니다》, 《봄노래》

를 비롯한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의 낸데, 당의 령도밑에 절쳐졌던 20세기의 문부부흥의 시대를 되새겨보게 하는 명곡들은 눈부신 시대적변혁이 창조되던 나날들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그들을 숭엄한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우리식 전자음악과 경음악

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던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당시)의 경쾌한 선율과 함께 우리 인민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들의 춤연으로 공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명가수들

이 부르는 《친근한 이��》, 《황금나루》 등 무수한 산에 심었소》,

《나를 부르는 소리》, 《지새지 말

아다오 평양의 밤아》,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님께》, 《장군님께》, 《장군님생각》, 《휘파람》, 《배꾸기》,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사회주의 지키세》 등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대동강의 밤하늘과 울려펴지는 가야금 2중주와 병창 《바다 민풍가》, 내성민요제창 《칠령아래 사파바다》 등의 종목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인민의 꿈과 리사이에 헌실로 펼쳐지는 우리 조국의 전변의 모습들을 감명깊게 형상화나갈 천민군민의 드립없는 혁명적열정과 의지가 맹박치는 할

대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

서 배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 탈

려나갈 천민군민의 드립없는 혁

명적열정과 의지가 맹박치는 할

창 《가리라 배두산으로》로 막을

내렸다.

대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

사상에 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

의 절친을 받았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대 공연은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의 성스러운 혁명워업은 어제도

오늘도 령도에 영원히 월성불매

이라는 것을 장엄한 회복으로 감

명깊게 보여준 대공연은 높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

